

# 가축분자원화를 위한 집파리알 보존법 개발

황석조, 방혜선, 권오석, 권용정<sup>1</sup>, 김정주

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곤충기능연구실

<sup>1</sup>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

가축분 자원화에 이용하고자 채난한 집파리 (*Musca domestica*) 난의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해 실험을 한 결과, 집파리 알 저장에 적합한 배지원은 저장 시 알과 배지원의 혼합이 용이하고 운반 및 이식시의 이용 편리성이 양호한 배지원 B가 28℃에서 1일간 저장시 용화율이 67.5%로 가장 양호하였으며 무처리구보다 55%가 높았다. 집파리 알은 28℃에서 13시간 이후에는 부화하여 유충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저장 및 이식시 불편하여,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5℃ 저장시 1일 후에는 알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용화율은 63.0%였다

배지원 B를 이용한 집파리 알 보존 시 용화율 향상시험 결과는 습도가 80%인 채난실에서 채난한 난을, 수분함량이 50%인 Wet type 난저장 배지원에 담고 Gauze cover를 하여 15℃에 1일간 저장한 후 유충사육실 습도가 80%인 상태에서 골뿌림 이식을 하고 천으로 덮어주면 용화율은 85%였다.